

第32代 金鎮模 檢事長님 就任式

2015年 2月 11日

# 就任辭



仁川地方檢察廳

# I

**인천검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해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 이곳 인천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동안 인천지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세월호 선주 비리 사건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여러 중요사건을 최선을 다해 수사하였고,

다른 청보다 부담이 많은 가운데에도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신속한 사건처리를 하였으며, 각종 제도개선이나 검찰 행정 부분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천지검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전임 강찬우 검사장님을 비롯한 선배 검사장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합심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인천지검 구성원 여러분들에게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II

**인천검찰 가족 여러분!**

우리 검찰이 지금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여러 면에서 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병폐들이 계속 드러나고, 한편으로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눈높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전과 같은 품질의 업무수행으로는 국민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탓하며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으로 검찰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공직자인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천지점이 어떤 검찰청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고자 합니다.

### Ⅲ

우선,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합시다.

법질서의 확립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주장이 언제나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툼이나 갈등도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체와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 하여, 법질서의 준수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토대라는 믿음이 지역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합시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층 더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에 숨어 있는 고질적 부패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발본색원해 나가되, 눈에 보이는 불법만이 아니라 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호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 조직폭력 등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각종 폭력 범죄나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침해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천지검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검찰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할 불법과 비리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우리의 역량을 모음으로써,

“인천지검이 있어 지역이 평화롭고 살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바르고 반듯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늘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바르게 일을 한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지검 구성원들이 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자가 맡은 일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며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범죄는 명확히 규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되, 그 과정에서는 상대방을 겸허하게 배려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늘 사건관계인의 사정이나 동기 등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건의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소통과 화합으로 힘을 모으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지점을 만듭시다.

구성원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화합하지 못하는 조직은 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화합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통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크게 귀를 열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상대방의 입장과 조직의 발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진솔하면서도 진지하게 서로 소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모을 때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인천지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지점을 만들어 갑시다.

저는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빛나고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저와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가진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동료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대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 인천지점이 행복한 직장이 될 것이고,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 IV

**인천검찰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천검찰의 주인입니다.

언제나 주인다운 자긍심, 주인다운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신명나게 일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 2. 11.

仁川地方檢察廳 檢事長 金 鎮 模